

학교 진로상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현 립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 및 그들 학부모의 진로의식에 대해 분석하여 효율적인 진로교육의 자료로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일에 대한 소중함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심어주며, 학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위한 올바른 진로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하여 바람직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학교 진로상담의 개선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어떻게 진로선택이라는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효과적인 학교 진로상담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부모들은 진로상담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아 지적 발달에 편중되지 않고 자녀의 진로의식 발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학교나 가정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직업관을 심어주고, 정신적인 노동이 육체적 노동보다 좋은 직업이라는 사고방식을 지양해야 하며 이는 현 우리나라 현실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갖고 그 일 자체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학교에서도 각각의 직업의 특성 및 중요성에 대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와 학교는 학생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올바른 새로운 직업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학부모의 진로의식 역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재정비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분 학교사회 역시 계속되는 사회변화에 부응하
화로 인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여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일에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

대한 가치관은 조선시대 이후 아무런 진전없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유교가 농공상업의 일을 천시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천대한 이래, 여전히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은 뿌리깊게 한국인들의 정서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는 장차 우리나라를 선도할 학생들의 의식수준에도 알게 모르게 배어 들어, 다른 여러 분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관은 옛날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로지도는 한 개인의 바람직한 진로 선택에 필수적인 부분이며,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볼 때도 올바른 인재등용이나 인적 자원 활용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지도의 의미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등학교에서는 진로지도의 의미를 상급학교를 지원할 때 성적이나 학부모의 의견, 또는 학생의 흥미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도록 도와 주는 매우 소극적인 활동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은 학교와 교원, 행정기관 등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시켜, 종래의 가정교육만을 담당하던 부모의 역할을 여러 모로 변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21세기는 다직업 사회로서 한 사람에게 다양한 직업을 요구하게 되므로, 일에 대한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부모라는 사실에 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배우는지에 대해 부모가 관여할 여

지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선생님이 전담하는 것으로 '학부모 참여'의 문제는 엄두를 낼 수도 없는 문제였으며, 속수무책인 채 뒷전으로 밀려나 자녀가 오로지 잘 되기만, 그리고 선생님이 올바르게 지도하여 주기만을 염원할 뿐이었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이러한 학부모의 위치를 교육의 주변에서 핵심부분으로 옮겨 놓았고, 이에 부모는 관조적(觀照的) 입장을 탈피하고 자녀가 장래 직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지원자이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개혁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권리를 찾아준다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부모의 어깨에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선택과 책임의 좀더 무거운 짐을 지워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진로에 관한 한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모와 함께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는 자녀는 자신의 앞날이 어둡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점에서 이미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하여 학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바라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부모에게 원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는 더욱 체계적이며, 시행착오 없는 진로상담을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진로교육 및 지도에 대한 개념을 중·고등학생들에게만 적용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진로에 대한 발달적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진로의식 발달은 지속적인 과정으로써 인식, 탐색, 준비

및 전문화의 단계를 거친다. 이 입장에서 보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에 대해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인식과 탐색의 초기 단계이다. 따라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시기부터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그 이후단계의 진로에 대한 원만한 성숙과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산업과 산업공정상의 변화, 직업의 변화, 노동력의 증가, 기술이 없는 젊은이들의 취업기회 감소, 급격히 확장되고 점차 복잡해지는 일의 세계, 직업 요구조건의 변화 등에 현명케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꾸준하고 일관성있게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결정과 준비는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며(Havighurst, 1982), 이런 청소년기는 일의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만 다음 발달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Vandenberg, 1968). 이러한 중책을 담당할 사람은 물론 청소년 자신이겠지만 학교에서는 교사이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진로상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먼저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분석하며,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의 진로의식을 아울러 알아봄과 동시에 이들 간에 어떠한 의식차가 존재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 진로상담 관련 연구의 대상에서 지금까지 주로 제외되었던 초등학교 아동 뿐만 아니라 진로의식이 발달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학생들 역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의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학교수준의 학부모들 역시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중에서 초·중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학교수준별, 지역별, 성별 등의 변인들을 분석하여, 학교진로상담에 필요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1.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진로지도는 일반적으로 중등학교 수준 이상에서부터 요구된다는 통념이 있었으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Hoose & Leonard, 1971; Herr & Cramer, 1992). 첫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즉 산업과 산업공정상의 변화, 직업의 변화, 취업기회 감소, 급격히 확장되고 점차 복잡해지는 일의 세계, 직업 요구조건의 변화 등에 따라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진로지도를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인성과 아동발달 분야에서 밝혀진 연구들이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도 진로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각급학교에서 진로지도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진로를 의식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있다(Gysbers & Moore, 1975; 이현림, 1997). 즉, 진로지도를 통해서 각 개인이 자기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위 여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

하고 개척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의 주목적은 진로선택에 필요한 초보적인 지식 및 기능, 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자아에 대한 이해 둘째, 다양한 직업역할의 유형에 대한 인식 및 일의 세계와 관련된 개념의 발달 셋째, 자신의 행동 및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 넷째,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 다섯째, 협동적인 사회행동의 학습 여섯째, 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개발 등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초등학교 진로교육에서는 사람들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일이든 정신적 일이든 관계없이 타인이 하는 모든 일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진로지도의 방법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형식적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동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아동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행동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교수법과 가능하다면 다양한 매체 즉, 비디오, 슬라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점차적으로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동들의 진로발달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번째는 진로발달을 위한 준비도를 확립하고, 두번째는 아동들이 직접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가상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방법이다 (O'Hara, 1968; Herr & Cramer, 1992).

또한 초등학교 학생의 가정에서 진로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아동은 부모가 보여주는 직업생활에서의 행동양식, 직업관,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각종 직업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그 나름대로 탐색의 경험을 쌓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업에 대한 흥미도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일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아동의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찰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부모는 가정에서 지원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업이나 진로에 대한 대화시간을 자주 마련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보도록 한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발언에 대해 지나친 비판이나 반론은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고, 자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 자신의 생각을 종용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한다. 또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일을 분담해서 그 일을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일에 대한 기초기능과 기본적인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중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초등학교에서 일에 대한 가치 및 태도를 중심으로 진로지도를 하던 것이 중학교에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다양성을 띄게 되며, 범위 또한 확대된다. 즉,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강조되던 일에 대한 안내를 계속하는 동시에 정확한 자아개념의 발달과 의사결정 능력의 증진을 기하고 직업정보 및 탐색적 경험을 제공해 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계획을 세워 보도록 도와 준다.

이 시기의 진로발달을 위한 경험 또한 다른 단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진로의식 성숙정도 및 발달특징을 기초로 해야 한다. 즉, 학생의 자아개념, 일에 대한 경험과 태도, 진로계획을 위한 준비도, 의사결정 능력 정도를 고려해서 진로지도 활동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진로지도의 목적은 초등학교의 목적이 그대로 중학교에 연장되지만 중학교에서는 이전의 목적을 기초로 하여 몇 가지 요소를 더 첨가하고, 그 길이와 폭을 넓게 하면 된다.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자아개념의 구체화 둘째,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셋째, 진로계획에 대한 책임감의 신장 넷째,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다섯째, 의사결정 능력의 신장 여섯째,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과 보다 성숙한 사회적 관계의 신장 등이다. 요약하면, 중학교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일의 세계에 대한 안목을 넓히며, 진로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줄 알게 함으로써 잠정적인 장래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는 데 진로지도의 목적이 있다(Lee, 1988).

진로지도의 방법에 있어서 중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왜냐하면 몇 년간의 경험과 성장의 결과로 인해 지적·사회적·신체적인 면이 많이 발달되고, 신체적 특성에 못지 않게 세상을 보는 눈이나 관심사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생활의 터전도 가정에서 다소 탈피하여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시작된다. 지적, 사회적 성숙에 따라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역시 능력이나 흥미, 학업성적, 직업의 전망 등의 요소를 신

중히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진로계획을 위한 방법이나 준비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있지 못하여 학생 간에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지도가 요청된다.

중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방법을 채택할 때 고려해야 할 일차적인 요인은 추상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하는 것이다. 이에 중학교에서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을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하여 첫째, 언어적 상징 둘째, 레코드, 라디오, 사진 셋째, 영화 넷째, TV 다섯째, 전시 여섯째, 견학 일곱째, 시범 여덟째, 극화 경험 아홉째, 시뮬레이션 마지막으로 직접적이고 유목적적 경험의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Bottoms & Cleere, 1969; Brown & Brooks, 1991).

3)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 달리 고등학생은 학교를 졸업한 후 직면하게 되는 현실로서 직업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든 취업을 하든 자신이 지금까지 속한 사회에 비해 훨씬 넓은 사회에 적응해야 하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은 자신의 능력, 적성, 흥미, 경제적 여건, 직업적 열망, 부모와 주위사람의 의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만 한다.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의 목적은 독립된 인간으로서 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 준비, 진로방향 정립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진로목적을 보다 구

체적으로 수립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둘째, 자신의 진로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셋째,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더욱 신장하고 이러한 능력을 진로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넷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집단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졸업 후에 자기가 처할 환경에 대비하도록 하고, 취업할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고등학교의 진로지도 방법은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 즉 가상경험(假想經驗), 집단토의, 일에 대한 학습기회 등을 다소 정도를 높여서 사용하면 된다. 대학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대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직업선택을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또 취업할 학생들을 위해 현장학습이나 학교에서의 직업과목을 선택한다면 일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Lee, 1988).

2. 학부모의 역할

부모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성숙과정의 일부이다(Erikson, 1963). 그래서 사람은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고자 하는 타고난 동기를 갖는데 이 동기는 자녀를 낳아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표현된다고 하였다. 부모가 되는 동기로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숙명적인 이유이며, 둘째는 이타주의적 견해이다. 즉, 자녀에게 애정을 주고 헌신적으로 돌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기도취적 동기에서 부모가 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도구적인 동기에서 자녀를

가진다는 것이다(Bigner, 1979). 즉, 자녀가 부모를 대신하여 어떤 목적을 달성해 주기를 바란다든지, 자녀를 통하여 지나간 자신의 과거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든지 하는 도구가 자녀라는 것이다(Ginott, 1972).

이러한 부모역할의 특성을 살펴 보면, 먼저 부모역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역할은 실수의 여지가 없으며, 도중에 그만 둘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부모는 권위가 없고 의무만 있으며, 또한 부모들이 믿고 따를 전통적인 자녀양육 모델도 없다. 현대의 부모들은 단순히 사회의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충분치 않고 자신보다 더 나은 존재를 자녀로 키우도록 기대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혼자서 독단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부모가 첫 아이를 이해한다고 해서 둘째 아이 역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자녀는 독특하며, 자신에게 맞는 부모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됨에 대한 준비나 훈련없이 부모가 되며, 부모역할은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부모는 이러한 부모역할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으며, 특히 현대 사회는 경제상황과 교육열 때문에 명확한 한계가 없는 부모역할은 그 시기가 점점 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부모역할은 자녀에 따라 적절해야 하며,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또한 일년이면 변하는 담임선생님에게 자녀의 모든 교육문제를 책임지울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부모역할의 비중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교육개혁은 주변인으로서가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학부모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인교육의 실현이다. 종래의 교육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보편적 기준에 의해 정형화된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운동을 잘 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보다는 수학이나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아이들을 수학이나 국어나 또는 영어를 잘 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아이가 지니고 있는 개별성을 인정해 주고 그 나름의 정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전인교육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많은 가능성, 일체의 가능성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중요시 하는 교육사상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란 자녀들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서 참다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모든 면에 다 뒤처지고 아주 무능한 사람이란 없다. 재능이 있건 없건 간에 사람이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독특한 재능을 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재능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재능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부모는 아이가 어떤 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우연한 기회에 비교적 잘한다 싶은 것이 있으면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 보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배움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자녀들에게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즐거움이 그 활동을 계속하게끔 하는 동기가 되어 그 활동은 아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해준다. 이 점이 재능교육의 핵심이다.

이렇듯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고 키워주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와 행동도 존재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 아이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중 많은 부분은 부모의 가정생활에서 형성된다. 부모는 자녀에게 새로운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개혁에 걸맞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체계를 세우는 논리적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교육은 원인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주입식 교육방법이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능력이 키우기가 힘들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해 사고를 통해 얻은 지식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수용된 지식이었던 것이다. 이에 우리의 삶이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 될수록 논리적 사고와 행동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인습과 타성에 벗어난 창조적 사고와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상투적이다'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는데 이는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쓰여져 오던, 즉 새로운 참신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사고가 인습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서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상투적인 삶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사고와 행동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능성은 한층 더 커져 나갈 수 있다. 부모들은 어른들의 생각만을 강제로 주입시키지 말고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힘껏 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다. 셋째, 머리와 마음을 여는 자발적 사고와 행동이다.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 강요에 의해 이루어질 때 보다는 스스로 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행해 질 때에 그 성취도가 높아지게 마련이다. 사고 자체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자기 안에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자책적 사고와 행동이다. 지금 우리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들은 부모세대가 제공하는 갖가지의 물질적 혜택과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하여 매우 나약해져 있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또 성숙해질 수 있다. 다섯째, 흔들림없는 주체적 사고이다. 누구나가 그렇듯이 자신의 인생은 자기 스스로 헤쳐 나가야만 한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던 유아시절을 벗어나면서 우리는 자기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한다. 이 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주체적 사고이므로, 자녀들이 나름대로의 주체

적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평소 가정생활에서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의 모호한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사람이 생을 보람있게 산다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로 인해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가장 보람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가 진실로 하고 싶었던 것이란 바로 그의 삶의 핵심에 해당하는 목표나 적성같은 것일 터이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표현했다는 것을 뜻한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자아실현을 돕는 일이라면 부모들은 삶의 중심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자녀들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 중심요소를 스스로 키워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 및 그들 학부모의 진로의식에 대해 분석하여 효율적인 진로교육의 자료로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일에 대한 소중함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심어주며, 학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를 위한 올바른 진로상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첫째, 학생의 진로의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둘째, 학부모의 진로의식이 어떠한 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의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학생의 선정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대도시 지역

〈표 1〉 연구대상

초				중				고				계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학생		학부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남	여	부	모
99	101	102	99	100	133	131	79	102	115	110	110	301	349	343	288
200		202		233		210		217		220		1,281			

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대구광역시 소재 1개 초등학교, 2개의 남·여 중·고등학교 680명을 무선표집하였으며, 학부모는 이들의 부모 중 한 분을 선정하여 6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한 결과 그 중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한 유효설문지수는 학생 650명, 학부모 631명이었다.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고, 사용된 도구는 진로의식 설문지 2종, 즉 학생용과 학부모용이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여 학생용 설문지의 문항은 성별과 학교수준별(초·중·고)에 따른 차이를 보았으며, 학부모용 설문지의 문항은 성별, 부모 연령별, 자녀의 학교수준별에 따라 χ^2 검증을 하였다.

학생용과 학부모용 문항 중 문항의 유형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각 문항별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1점, '비교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비교적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다'는 4점, '아주 그렇게 생각한다'는 5점으로 평정하여 각

문항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결 과

1. 학생들의 진로의식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업을 갖는 데 대한 견해

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는 데 대한 견해에 대해 분석해 보면 표 2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남학생은 72.76%, 여학생은 58.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61.00%, '직업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에 22.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학생은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69.10%, '직업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에 16.3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에 64.98%, '직업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에 19.8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 < .01$).

〈표 2〉 직업을 갖는 데 대한 견해

()는 %

구분\항목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	돈이 있으면 안 가져도 된다.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	잘 모르겠다.	기타	계	χ^2
성별	남	219 (72.76)	17 (5.65)	38 (12.62)	18 (5.98)	9 (2.99)	301 (46.31)	2.04
	여	205 (58.74)	17 (4.87)	87 (24.93)	24 (6.88)	16 (4.58)	349 (53.69)	
학교 수준별	초	122 (61.00)	7 (3.50)	44 (22.00)	12 (6.00)	15 (7.50)	200 (30.77)	72.32**
	중	161 (69.10)	12 (5.15)	38 (16.31)	19 (8.15)	3 (1.29)	233 (35.85)	
	고	141 (64.98)	15 (6.91)	43 (19.82)	11 (5.07)	7 (3.23)	217 (33.38)	
계		424 (65.23)	131 (20.15)	33 (5.08)	84 (12.92)	25 (3.85)	650 (100.00)	

** p<.01

2) 선호하는 직업의 형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형태에 대해 분석해 보면 표 3과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정신적 노동이나 육체적 노동이 같은 수준으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41.53%, 잘모르겠다 학생이 33.2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정신적 노동이나 육체적 노동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39.66%, 잘모르겠다고 대답한 학생이 34.4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3〉 선호하는 직업의 형태

()는 %

구분\항목		정신적 노동	육체적 노동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이 모두 중요하다	잘 모르겠다	계	χ^2
성별	남	72 (23.92)	4 (1.33)	125 (41.53)	100 (33.22)	301 (46.31)	1.30
	여	87 (25.00)	4 (1.15)	138 (39.66)	120 (34.49)	349 (53.69)	
학교 수준별	초	52 (26.00)	2 (1.00)	86 (43.00)	60 (30.00)	200 (30.77)	25.80**
	중	58 (24.89)	3 (1.29)	98 (42.06)	74 (31.76)	233 (35.85)	
	고	49 (22.69)	3 (1.39)	79 (36.57)	85 (39.78)	217 (33.38)	
계		159 (24.50)	8 (1.23)	263 (40.52)	220 (33.74)	650 (100.00)	

** p<.01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이 모두 중요하다는 43.00%, 잘모르겠다는 30.00%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둘다 같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2.06%, 잘 모르겠다는 31.76%로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어떤 직업이 좋은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39.78%, 둘다 같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36.5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 < .01$).

3)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현재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살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공부문제(64.45%), 진로문제(14.29%), 인간관계문제(14.2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공부문제(60.74%), 진로문제(13.47%), 이성문제(7.7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수준별로 살펴 보면, 초등학생은 공부문제(54.50%), 진로문제(9.5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공부문제(65.67%), 진로문제(10.7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 역시 공부문제(66.36%), 진로문제(21.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1$).

4) 장래 진로 및 취업의 상담자

학생들이 장래 진로나 취업 등을 주로 누구와 상의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성별로 장래 진로나 취업에 대한 상담자를 보면, 남녀 학생 모두 부모, 친구,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남학생(14.29%)과 여학생(16.91%)이 모두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수준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부모(66.09%)와 친구(13.91%) 순이었고, 이와 반대로 중학생은 친구(34.33%)와 부모(33.05%)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은 친구(37.79%)와 부모(35.02%)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반응하였고, 이

〈표 4〉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는 %

항목 구분	건강문제	사회문제	가족문제	공부문제	인간관계 문제	진로문제	이성문제	기타	계	χ^2	
성별	남	9 (2.99)	11 (3.65)	9 (2.99)	194 (64.45)	17 (5.65)	43 (14.29)	9 (2.99)	9 (2.99)	301 (46.31)	11.19
	여	11 (3.15)	5 (1.43)	9 (2.58)	212 (60.74)	25 (7.16)	47 (13.47)	27 (7.74)	13 (3.72)	349 (53.69)	
학교 수준 별	초	12 (6.00)	11 (5.50)	6 (3.00)	109 (54.50)	16 (8.00)	19 (9.50)	10 (5.00)	17 (8.50)	200 (30.77)	67.56**
	중	6 (2.58)	3 (1.29)	8 (3.43)	153 (65.67)	15 (6.44)	25 (10.73)	20 (8.58)	3 (1.29)	233 (35.85)	
	고	2 (0.92)	2 (0.92)	4 (1.84)	144 (66.36)	11 (5.07)	46 (21.20)	6 (2.76)	2 (0.92)	217 (33.38)	
5계	20 (3.08)	16 (2.46)	18 (2.77)	406 (62.46)	42 (6.46)	90 (13.85)	36 (5.54)	22 (3.38)	650 (100.00)		

** $p < .01$

〈표 5〉 장래 진로 및 취업의 상담자

()는 %

항목 구분		부모	친척	선생님	친구	선배	상담자	없음	기타	계	χ^2
성별	남	131 (43.52)	5 (1.66)	7 (2.33)	92 (30.56)	2 (0.66)	3 (1.00)	43 (14.29)	18 (5.98)	301 (46.31)	6.58
	여	150 (42.98)	2 (0.57)	8 (2.29)	105 (30.09)	7 (2.01)	5 (1.43)	59 (16.91)	13 (3.72)	349 (53.69)	
학교수준별	초	128 (64.00)	1 (0.50)	5 (2.50)	35 (17.50)	1 (0.50)	3 (1.50)	18 (9.00)	9 (4.50)	200 (30.77)	72.29**
	중	77 (33.05)	2 (0.86)	3 (1.29)	80 (34.33)	1 (0.43)	4 (1.72)	51 (21.89)	15 (6.44)	233 (35.85)	
	고	76 (35.02)	4 (1.84)	7 (3.23)	82 (37.79)	7 (3.23)	1 (0.46)	33 (15.21)	7 (3.23)	217 (33.38)	
계		281 (43.23)	7 (1.08)	15 (2.31)	197 (30.31)	9 (1.38)	8 (1.23)	102 (15.69)	31 (4.77)	650 (100.00)	

** p<.01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5) 진로선택에 대한 자료의 제공여부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

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학생들이 비교적 낮은 점수(M=2.27)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학교는 학생들에게 필요

〈표 6〉 진로선택에 대한 자료의 제공여부

구분		n	M	SD	유의도
성별	남	301	2.34	1.23	1.34
	여	349	2.21	1.15	
초	남	99	3.12	1.19	0.25
	여	101	3.07	1.15	
중	남	100	2.37	1.13	0.90
	여	133	2.24	1.03	
고	남	102	1.55	0.82	1.31
	여	115	1.42	0.63	
학교수준별	초	200	3.10	1.17	135.61**
	중	233	2.30	1.07	
	고	217	1.47	0.73	
계		650	2.29	1.00	

** p<.01

한 진로선택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M=2.34)이 여학생(M=2.21)에 비하여 약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교수준별로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등학생은 남학생(M=3.12)이 여학생(M=3.07)에 비해 좀더 학교가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중학생은 남학생(M=2.37)이 여학생(M=2.24)에 비해 학교가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다소 높은 반응을 보였다. 고등학생은 남학생(M=1.55)과 여학생(M=1.42)이 학교가 제공해 주는 진로정보에 대해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체 학교수준별로 보면, 초등학생(M=3.10)에 비해 중학생(M=2.30)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M=1.47)이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선택 정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여 주었다(p<.01).

2. 학부모의 진로의식

학부모들의 진로의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직업이 필요한 이유

학부모가 직업이 필요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성별로 보면, 부모 모두 '능력이나 적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입신출세와 성공을 위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학교수준별로 보았을 때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능력이나 적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국가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순으로 직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부모들은 직업이 필요한 이유가 '능력이나 적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입신출세와 성공을 위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표 7〉 직업이 필요한 이유

()는 %

구분	항목	능력이나 적성을 발휘	돈을 벌기 위해	국가사회에 봉사하려고	입신출세와 성공을 위해	기타	계	χ^2
성별	부	185 (59.68)	55 (17.74)	12 (3.87)	43 (13.87)	15 (4.84)	310 (49.13)	15.33**
	모	221 (68.85)	47 (14.64)	8 (2.49)	20 (6.23)	25 (7.79)	321 (50.87)	
자녀 학교 수준 별	초	155 (77.50)	15 (7.50)	9 (4.50)	6 (3.00)	15 (7.50)	200 (31.70)	87.51**
	중	134 (63.81)	30 (14.29)	9 (4.29)	14 (6.67)	23 (10.95)	210 (33.28)	
	고	117 (52.94)	57 (25.79)	2 (0.90)	43 (19.46)	2 (0.90)	221 (35.02)	
계		406 (64.34)	102 (16.16)	20 (3.17)	63 (9.98)	40 (6.34)	631 (100.00)	

** p<.01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1$). 기타 의견으로는 자아실현을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당연하기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반응한 사람이 다소 있었다.

2) 다양한 직업에 대한 생각

학부모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8와 같다.

성별로 보면, 아버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좋은 직업도 있고 나쁜 직업도 있다'(89.68%), '모두 다 좋은 직업이다'(7.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는 '좋은 직업도 있고 나쁜 직업도 있다'(83.18%), '잘 모르겠다'(7.79%), '모두 다 좋은 직업이다'(7.4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5$). 자녀 학교수준별로 보면 초·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들이 '좋은 직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에 모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관심도

학부모로서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부모들이 보통정도의 관심($M=3.23$)을 보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아버지($M=3.22$)와 어머니($M=3.24$)가 거의 같은 수준의 관심도를 보여 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학교수준별에서 성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초등학교생의 어머니($M=3.06$)가 아버지의 어머니($M=2.94$)에 비해, 중학생의 어머니($M=3.33$)가 아버지의 어머니($M=3.04$)에 비해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고등학생의 아버지의 어머니($M=3.69$)가 어머니($M=3.33$)에 비해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관심도를 자녀의 학교수준별로 알아본

〈표 8〉 다양한 직업에 대한 생각

()는 %

항목 구분	모두 다 좋은 직업	좋은 직업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음	모두 다 좋지 못한 직업	잘 모르겠음	계	χ^2
성별	부 (7.10)	278 (89.68)	2 (0.65)	8 (2.58)	310 (49.13)	10.74*
	모 (7.48)	267 (83.18)	5 (1.56)	25 (7.79)	321 (50.87)	
자녀 학교 수준 별	초 (6.50)	177 (88.50)	2 (1.00)	8 (4.00)	200 (31.70)	8.58
	중 (7.62)	180 (85.71)	2 (0.95)	12 (5.71)	210 (33.28)	
	고 (7.69)	188 (85.07)	3 (1.36)	13 (5.88)	221 (35.02)	
계	46 (7.29)	545 (86.37)	7 (1.11)	33 (5.23)	631 (100.00)	

* $p < .05$

〈표 9〉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관심도

구 분		n	M	SD	유의도
성별	부	343	3.22	1.09	-0.24
	모	288	3.24	1.05	
초	부	101	2.94	1.03	-0.80
	모	99	3.06	1.05	
중	부	131	3.04	1.09	-1.86*
	모	79	3.33	1.09	
고	부	111	3.69	0.99	2.62**
	모	110	3.33	1.01	
학교 수준별	초	200	3.00	1.04	3.22**
	중	210	3.15	1.10	
	고	221	3.51	1.01	
계		631	3.23	1.05	

* p<.05, ** p<.01

결과, 고등학생의 부모(M=3.51), 중학생 부모(M=3.15), 초등학생 부모(M=3.00)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부모와 초, 중, 고 학교수준별로 학부모들을 비교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4) 직업선택의 조건

학부모는 자녀가 좋은 직업을 선택하려면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표 10〉 직업선택의 조건

()는 %

구분	항목	특별한 기술	학벌	경제적 능력	배경과 권력	꾸준한 적성 개발	기타	계	χ^2
	성별	부	43 (13.87)	49 (15.81)	8 (2.58)	9 (2.90)	198 (63.87)	3 (0.97)	
모		44 (13.71)	31 (9.66)	6 (1.87)	6 (1.87)	230 (71.65)	4 (1.25)	321 (50.87)	
자녀 학교 수준 별	초	17 (8.50)	12 (6.00)	1 (0.50)	4 (2.00)	165 (82.50)	1 (0.50)	200 (31.70)	96.39**
	중	26 (12.38)	13 (6.19)	1 (0.48)	3 (1.43)	164 (78.10)	3 (1.43)	210 (33.28)	
	고	44 (19.91)	55 (24.89)	12 (5.43)	8 (3.62)	99 (44.80)	3 (1.36)	221 (35.02)	
계		87 (13.79)	80 (12.68)	14 (2.22)	15 (2.38)	428 (67.83)	7 (1.11)	631 (100.00)	

** p<.01

분석하면 표 10과 같다. 먼저 성별로 보면, 아버지는 좋은 직업선택의 조건으로 '꾸준한 적성 개발'(63.87%), '학벌'(15.81%), '특별한 기술'(13.8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꾸준한 적성 개발'(71.65%), '특별한 기술'(13.71%), '학벌'(9.6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자녀의 학교수준별로 보았을 때 초·중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직업선택을 할 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꾸준한 적성 개발', '특별한 기술', '학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고등학생의 학부모들은 '꾸준한 적성 개발'과 함께 좋은 직업선택의 조건으로 '학벌'이 매우 중요하다고 반응하였다. 학교수준별로 부모들의 좋은 직업선택의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1$).

5) 이직(移職)에 대한 생각

학부모는 어떤 경우 직업을 바꾸겠는가

대한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면 표 11과 같다. 성별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적성에 알맞는 직업이 있을 때', '수입이 높을 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수준별 결과도 초·중·고등학교 부모들 모두 이직의 이유를 '적성에 알맞는 직업이 있을 때', '수입이 높을 때', '타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때'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이나 자녀의 학교수준별에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 < .01$). 기타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의식 비교.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의식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장래 희망 직업

학생이 원하는 장래 직업이 무엇인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질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2와

〈표 11〉 이직에 대한 생각

()는 %

구분	항목	수입이 높을 때	타인의 존경	사회에 공헌	적성에 알맞을 때	바꾸지 않는다	기타	계	χ^2
성별	부	59 (19.03)	28 (9.03)	16 (5.16)	196 (63.23)	7 (2.26)	4 (1.29)	310 (49.13)	22.46**
	모	27 (8.41)	16 (4.98)	25 (7.79)	234 (72.90)	12 (3.74)	7 (2.18)	321 (50.87)	
자녀 학교 수준 별	초	10 (4.98)	10 (4.98)	10 (4.98)	162 (81.09)	6 (2.99)	2 (1.00)	200 (31.70)	66.09**
	중	20 (9.52)	8 (3.81)	19 (9.05)	148 (70.48)	9 (4.29)	6 (2.86)	210 (33.28)	
	고	56 (22.45)	26 (11.82)	12 (5.45)	120 (54.09)	4 (1.82)	3 (1.36)	221 (35.02)	
계		86 (13.63)	44 (6.97)	41 (6.50)	430 (68.15)	19 (3.01)	11 (1.74)	631 (100.00)	

** $p < .01$

같다.

학생 및 학부모 전체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은 전문직·관리직(Ⅱ)(50.15%), 반전문직·소기업(24.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학생들의 아버지는 반전문직·소기업(32.84%), 전문직·관리직(Ⅰ)(30.50%)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어머니들도 반전문직·소기업(31.94%), 전문직·관리직(Ⅰ)(30.21%)의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교사나 공무원과 같은 전문직·관리직(Ⅱ)(42.50%)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반전문직이나 소기업(31.50%), 숙련직(23.00%)도 비교적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반전문직·소기업, 전문직·관리직(Ⅰ), 전문직·관리직(Ⅱ)의 순으로 희망했으며, 학생에 비해 숙련직을 선호하는 아버지(12.75%)와 어

〈표 12〉 희망하는 장래직업

()는 %

항목 구분		전문직·관리직Ⅰ	전문직·관리직Ⅱ	반전문직·소기업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계	χ^2
전체	학생	15 (2.32)	324 (50.15)	161 (24.92)	117 (18.11)	26 (4.02)	3 (0.46)	646 (50.67)	250.56**
	부	104 (30.50)	73 (21.41)	112 (32.84)	45 (13.20)	7 (2.05)	0 (0.00)	341 (26.75)	
	모	87 (30.21)	57 (19.79)	92 (31.94)	38 (13.19)	11 (3.82)	3 (1.04)	288 (22.59)	
초	학생	0 (0.00)	85 (42.50)	63 (31.50)	46 (23.00)	5 (2.50)	1 (0.50)	200 (49.88)	80.56**
	부	26 (25.49)	22 (21.57)	39 (38.24)	13 (12.75)	2 (1.96)	0 (0.00)	102 (25.44)	
	모	30 (30.30)	20 (20.20)	35 (35.35)	11 (11.11)	2 (2.02)	1 (1.01)	99 (24.69)	
중	학생	14 (6.01)	109 (46.78)	36 (15.45)	54 (23.18)	20 (8.58)	0 (0.00)	233 (52.83)	53.34**
	부	38 (29.46)	40 (31.01)	30 (23.26)	18 (13.95)	3 (2.33)	0 (0.00)	129 (29.25)	
	모	19 (24.05)	28 (35.44)	16 (20.25)	15 (18.99)	1 (1.27)	0 (0.00)	79 (17.91)	
고	학생	1 (0.47)	130 (61.03)	62 (29.11)	17 (7.98)	1 (0.47)	2 (0.94)	213 (49.19)	177.01**
	부	40 (36.36)	11 (10.00)	43 (39.09)	14 (12.73)	2 (1.82)	0 (0.00)	110 (25.40)	
	모	38 (34.55)	9 (8.18)	41 (37.27)	12 (10.91)	8 (7.27)	2 (1.82)	110 (25.40)	
계		206 (16.16)	454 (35.61)	365 (28.63)	200 (15.69)	44 (3.45)	6 (0.47)	1275 (100.00)	

** p<.0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1). 희망하는 장래직업을

머니(11.11%)는 적은 수를 차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1).

〈표 13〉 장래직업을 선택한 이유

()는 %

항목 구분	개인특성에 맞음	직업계승을 위해	못 이룬 꿈이어서	경제적 이유	인기가 있어서	잘 모르겠음	계	χ^2
전체	학생 (82.53)	7 (1.09)	17 (2.65)	47 (7.33)	40 (6.24)	1 (0.16)	641 (50.39)	125.57**
	부 (59.48)	7 (2.04)	29 (8.45)	36 (10.50)	26 (7.58)	41 (11.95)	343 (26.97)	
	모 (60.07)	10 (3.47)	29 (10.07)	24 (8.33)	24 (8.33)	28 (9.72)	288 (22.64)	
초	학생 (84.00)	4 (2.00)	6 (3.00)	15 (7.50)	7 (3.50)	0 (0.00)	200 (49.88)	37.68**
	부 (61.76)	5 (4.90)	13 (12.75)	5 (4.90)	5 (4.90)	11 (10.78)	102 (25.44)	
	모 (74.75)	3 (3.03)	7 (7.07)	6 (6.06)	2 (2.02)	7 (7.07)	99 (24.69)	
중	학생 (79.22)	1 (0.43)	10 (4.33)	19 (8.23)	17 (7.36)	1 (0.43)	231 (52.38)	40.50**
	부 (66.41)	1 (0.76)	13 (9.92)	8 (6.11)	5 (3.82)	17 (12.98)	131 (29.71)	
	모 (63.29)	2 (2.53)	5 (6.33)	7 (8.86)	4 (5.06)	11 (13.92)	79 (17.91)	
고	학생 (84.76)	2 (0.95)	1 (0.48)	13 (6.19)	16 (7.62)	0 (0.00)	210 (48.84)	107.12**
	부 (49.09)	1 (0.91)	3 (2.73)	23 (20.91)	16 (14.55)	13 (11.82)	110 (25.58)	
	모 (44.55)	5 (4.55)	17 (15.45)	11 (10.00)	18 (16.36)	10 (9.09)	110 (25.40)	
계	906 (71.23)	24 (1.89)	75 (5.90)	107 (8.41)	90 (7.08)	70 (5.50)	1272 (100.00)	

** p<.01

초등학생이 다양한 직업을 선호하는 데 반해 중학생은 전문직·관리직(Ⅱ)이 가장 높았고, 학부모도 역시 전문직·관리직(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학생 역시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기술자나 자동차 정비공과 같은 숙련직(23.18%)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학부모는 전문직과 관리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우세했다. 고등학생도 전문직·관리직(Ⅱ)(61.03%)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중학생

의 부모와는 달리 고등학생의 부모는 모두 반전문직이나 소기업, 전문직·관리직(Ⅰ), 숙련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1).

2) 장래직업을 선택한 이유

학생이나 학부모가 장래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은 '개인적 특성 즉, 적성, 흥미, 신체조건에 맞기 때문'(82.53%),

‘경제적 이유 때문’(7.33%)이라는 순으로 높은 반응을 했다. 아버지는 ‘개인적 특성에 맞기 때문’(59.48%), ‘경제적 이유 때문’(10.5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는 ‘개인적 특성에 맞기 때문’(61.76%), ‘못이룬 꿈이어서’(10.0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1$).

학교수준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대부분이 장래 희망직업을 ‘개인적 특성(적성, 흥미, 신체조건)에 맞기 때문’,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선택한다는 순으로 높은 반응을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부모들은 자신의 못 이룬 꿈 때문에 자녀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며, 고등학교의 아버지는 경제적인 이유(20.91%)를 고려하여 자녀의 장래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1$).

3)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을 보면 표 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모두 ‘자기특성, 즉 적성이나 흥미에 적절한 직업’(57.85%), ‘안정된 직업’(18.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는 ‘자기특성, 즉 적성이나 흥미에 적절한 직업’(50.44%), ‘안정된 직업’(21.57%)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어머니들 역시 ‘자기특성에 맞는 직업’(46.18%), ‘안정된 직업’(28.1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1$).

학교수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은 직업선택시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이 ‘자기특성에 적당’(67.50%), ‘안정적인 직업’(15.00%)을 선

택하겠다는 순이었고, 그들의 아버지는 ‘자기특성에 적절한 직업’(63.73%),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직업’(14.1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는 ‘자기 특성에 적절한 직업’(69.70%), ‘안정된 직업’(12.1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 모두 ‘자기특성에 적절한 직업’, ‘안정된 직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도 역시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시하는 요인이 ‘자기특성에 적절한 직업’(51.61%), ‘안정된 직업’(20.7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또한 고등학교의 아버지는 ‘자기특성에 적절한 직업’(40.00%), ‘안정된 직업’(28.1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반대로 어머니는 직업선택 조건으로 ‘안정된 직업’(40.00%), ‘자기특성에 적절한 직업’(24.5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1$).

4) 사람들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

사람들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및 학부모 모두 ‘보람과 만족을 찾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 < .01$). 학교수준별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을 하는 이유로 ‘보람과 만족을 얻기 때문’(74.50%), ‘생계유지’(17.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는 일을 하는 이유로 ‘보람과 만족을 얻기 때문’(48.04%), ‘생계유지’(25.49%)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일

〈표 14〉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

()는 %

구분	항목	경제적 수입	사회적 인정	안정된 직업	발전성	사회봉사 가능	자기특성 적당	기타	계	χ^2
전체	학생	34 (5.23)	32 (4.92)	123 (18.92)	65 (10.00)	15 (2.31)	376 (57.85)	5 (0.77)	650 (50.74)	50.61**
	부	20 (5.83)	41 (11.95)	74 (21.57)	21 (6.12)	14 (4.08)	173 (50.44)	0 (0.00)	343 (26.78)	
	모	21 (7.29)	33 (11.46)	81 (28.13)	12 (4.17)	8 (2.78)	133 (46.18)	0 (0.00)	288 (22.48)	
초	학생	4 (2.00)	11 (5.50)	30 (15.00)	11 (5.50)	9 (4.50)	135 (67.50)	0 (0.00)	200 (49.88)	14.06
	부	2 (1.96)	15 (14.71)	15 (14.71)	0 (0.00)	5 (4.90)	65 (63.73)	0 (0.00)	102 (25.44)	
	모	2 (2.02)	9 (9.09)	12 (12.12)	5 (5.05)	2 (2.02)	69 (69.70)	0 (0.00)	99 (24.69)	
중	학생	18 (7.73)	12 (5.15)	48 (20.60)	19 (8.15)	4 (1.72)	129 (55.36)	3 (1.29)	233 (52.60)	22.20*
	부	4 (3.05)	14 (10.69)	28 (21.37)	16 (12.21)	5 (3.82)	64 (48.85)	0 (0.00)	131 (29.57)	
	모	4 (5.06)	9 (11.39)	25 (31.65)	2 (2.53)	2 (2.53)	37 (46.84)	0 (0.00)	79 (17.83)	
고	학생	12 (5.53)	9 (4.15)	45 (20.74)	35 (16.13)	2 (0.92)	112 (51.61)	2 (0.92)	217 (49.66)	58.69**
	부	14 (12.73)	12 (10.91)	31 (28.18)	5 (4.55)	4 (3.64)	44 (40.00)	0 (0.00)	110 (25.17)	
	모	15 (13.64)	15 (13.64)	44 (40.00)	5 (4.55)	4 (3.64)	27 (24.55)	0 (0.00)	110 (25.17)	
계		75 (5.85)	106 (8.27)	278 (21.70)	98 (7.65)	37 (2.89)	682 (53.24)	5 (0.39)	1281 (100.00)	

* p<.05, ** p<.01

을 하는 이유로 '보람과 만족을 얻기 때문'(57.58%), '생계유지'(20.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1). 중·고등학교 역시 학생 및 학부모가 초등학생 및 학부모와 동일하게 '보람과 만족을 찾기 위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의 순으로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고등학생 및 학부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5). 기타 의견으로는 학생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반응하였으며,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5) 장래직업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자녀의 장래직업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은 모두 '부모와 많은 이

〈표 15〉 사람들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

()는 %

구분	항목	생계유지	보람과 만족을 얻음	자아실현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 해서	기타	계	χ^2
전체	학생	181 (27.85)	361 (55.54)	67 (10.31)	28 (4.31)	13 (2.00)	650 (50.74)	26.87**
	부	104 (30.32)	160 (46.65)	51 (14.87)	24 (7.00)	4 (1.17)	343 (26.78)	
	모	99 (34.38)	116 (40.28)	51 (17.71)	18 (6.25)	4 (1.39)	288 (22.48)	
초	학생	34 (17.00)	149 (74.50)	5 (2.50)	7 (3.50)	5 (2.50)	200 (49.88)	42.96**
	부	26 (25.49)	49 (48.04)	20 (19.61)	7 (6.86)	0 (0.00)	102 (25.44)	
	모	20 (20.20)	57 (57.58)	19 (19.19)	2 (2.02)	1 (1.01)	99 (24.69)	
중	학생	74 (31.76)	112 (48.07)	28 (12.02)	14 (6.01)	5 (2.15)	233 (52.60)	6.04
	부	43 (32.82)	59 (45.04)	14 (10.69)	12 (9.16)	3 (2.29)	131 (29.57)	
	모	30 (37.97)	30 (37.97)	11 (13.92)	8 (10.13)	0 (0.00)	79 (17.83)	
고	학생	73 (33.64)	100 (46.08)	34 (15.67)	7 (3.23)	3 (1.38)	217 (49.66)	15.67*
	부	35 (31.82)	52 (47.27)	17 (15.45)	5 (4.55)	1 (0.91)	110 (25.17)	
	모	49 (44.55)	29 (26.36)	21 (19.09)	8 (7.27)	3 (2.73)	110 (25.17)	
계		384 (29.98)	637 (49.73)	169 (13.19)	70 (5.46)	21 (1.64)	1281 (100.00)	

* p<.05, ** p<.01

야기를 한 후 결정하겠다'(43.06%), '내 생각대로 결정하겠다'(23.5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버지는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하겠다'(60.06%), '자녀의 의견을 참고하겠다'(18.9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도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하겠다'(62.50%), '내 생각대로 자녀의 직업을 결정하겠다'(20.4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1). 기타 의

견으로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학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수준별로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학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 취할 자세를 보면, 초등학생들은 자신과 부모가 의견이 다르면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59.00%), '부모의 의견을 참고'(19.00%), '내 생각대로 결정'(18.00%)의 순으로 나타났고, 아버지는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76.47%)하겠다는 의

〈표 16〉 장래 직업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는 %

구분	항목	부모/자녀 의견에 따름	부모/자녀 의견을 참고	내 생각대로 결정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	기타	계	χ^2
전 체	학생	9 (1.38)	143 (22.00)	153 (23.54)	332 (51.08)	13 (2.00)	650 (50.74)	21.45**
	부	7 (2.04)	65 (18.95)	64 (18.66)	206 (60.06)	1 (0.29)	343 (26.78)	
	모	1 (0.35)	44 (15.28)	59 (20.49)	180 (62.50)	4 (1.39)	288 (22.48)	
초	학생	3 (1.50)	38 (19.00)	36 (18.00)	118 (59.00)	5 (2.50)	200 (49.88)	16.48*
	부	2 (1.96)	13 (12.75)	9 (8.82)	78 (76.47)	0 (0.00)	102 (25.44)	
	모	1 (1.01)	11 (11.11)	14 (14.14)	73 (73.74)	0 (0.00)	99 (24.69)	
중	학생	5 (2.15)	55 (23.61)	51 (21.89)	117 (50.21)	5 (2.15)	233 (52.60)	14.61
	부	2 (1.53)	27 (20.61)	23 (17.56)	78 (59.54)	1 (0.76)	131 (29.57)	
	모	0 (0.00)	9 (11.39)	11 (13.92)	57 (72.15)	2 (2.53)	79 (17.83)	
고	학생	1 (0.46)	50 (23.04)	66 (30.41)	97 (44.70)	3 (1.38)	217 (49.66)	7.37
	부	3 (2.73)	25 (22.73)	32 (29.09)	50 (45.45)	0 (0.00)	110 (25.17)	
	모	0 (0.00)	24 (21.82)	34 (30.91)	50 (45.45)	2 (1.82)	110 (25.17)	
계		17 (1.33)	252 (19.67)	276 (21.55)	718 (56.05)	18 (1.41)	1281 (100.00)	

* p<.05. ** p<.01

견과 '자녀의 의견을 참고'(12.75%)하겠다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는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73.74%), '내 생각대로 결정'(14.14%)하겠다는 순으로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5). 중학생을 살펴 보면, '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50.21%), '부모의 의견을 참고'(23.61%)하겠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아버지는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59.54%)하겠다는 것과

'자녀의 의견을 참고하겠다'(20.61%)는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는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72.15%), '내 생각대로 결정하겠다'(13.91%)는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고등학생을 살펴보면, '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44.70%), '내 생각대로 결정'(30.41%)하겠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아버지는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45.45%)하겠다는 의견과 '내 생각대로 결정하겠다'

<표 17> 장래 직업에 대한 토론 정도

구 분		n	M	SD	F
전체	학생	650	3.21	1.11	4.48*
	부	343	3.36	1.08	
	모	288	3.37	1.01	
초	학생	200	3.70	1.05	0.13
	부	102	2.94	1.03	
	모	99	3.06	1.06	
중	학생	233	2.94	1.12	6.23**
	부	131	3.32	1.17	
	모	79	3.32	1.07	
고	학생	217	3.32	1.06	0.18
	부	110	3.39	1.06	
	모	110	3.32	0.96	
계		1281	3.28	1.09	

1* p<.05, ** p<.01

(29.09%)는 순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한 후 결정'(45.45%), '내 생각대로 결정'(30.91%)하겠다는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중학교 학생의 어머니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와 자녀가 장래 직업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겠다는 반응이 초등학생(18.00%), 중학생(21.89%), 고등학생(30.41%)으로 학년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차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자녀의 장래직업에 대한 토론 정도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학생의 장래 직업에 대한 토론 정도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들(M=3.21)이 그

들의 아버지(M=3.36)나 어머니(M=3.37)에 비해 자신의 장래 진로를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5).

학교수준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초등학생(M=3.70)은 그들의 아버지(M=2.94)와 어머니(M=3.06)에 비해 장래진로에 대해 부모와 토론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아버지 에 비해 자녀와 장래 진로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M=2.94)들은 그들의 아버지(M=3.32)와 어머니(M=3.32)에 비해 좀더 자신의 장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여 주었다($p < .01$). 고등학생($M=3.32$)들은 중학생과 달리 그들의 아버지($M=3.39$)와 어머니($M=3.32$)와 비슷한 정도로 토론하고 있다고 반응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1. 학생들의 진로 의식

학생들의 진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직업을 갖는 데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돈이 있으면 직업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주는 진로교육이 시급함을 예증해 주고 있다. 또한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신적 노동을 선호하는 학생과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이 모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해란(1988)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는 질문에 대한 '잘모르겠다'는 대답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동들이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광병선·한승희(1982), 이현림(1997)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신재호(1984)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 의식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장래 진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좀더 진로선택시 조언자로 친구를 생각하여 이재창·박부권·유혜경·최상근·고진영(1981)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또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선택을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즉, 그 비율로 살펴봤을 때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모보다는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은 진로선택을 여전히 부모에 많이 의존하려는 성향을 띄며, 광병선·한승희(1982)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점차로 나이가 들수록,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줄어들어, 진로선택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진로선택을 위한 주체는 자신이며, 학부모의 의견 역시 수렴하여 좀 더 적절한 진로선택자료로 이용하도록 강화하며, 학부모에게는 자녀의 진로선택의 조언자로서 많은 정보와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재교육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남녀 학생 모두 공부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진로문제로 나타나, 이재창·박부권·유혜경·최상근·고진영(1981)과 정원식·김경동·김신일·배규한·최일섭(198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또 남녀 학생 모두 사회

문제, 가족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성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남녀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의식수준에 있어 남녀 학생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Crites (1969), 조재순(1991), 강득화(1991)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또 학교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부문제와 진로문제를 고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초·중·고등학생 모두 현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문제이며, 진로문제 역시 공부문제와 연관되어 현실적으로 진학과 취업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민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건강, 사회, 가족, 인간관계, 이성문제 등에 대한 고민은 공부나 진로문제에 떠밀려 별로 중요한 문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성진(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 장래 진로나 취업 등을 주로 누구와 상의하는지에 대해, 부모, 친구, 상의할 사람이 없다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나 직업문제의 상의를 교사보다는 부모나 친척, 친구나 선배에게 하고 있다고 반응한 이성진(198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여전히 진로문제에 대해서 부모에게 많이 상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진로문제에 대하여 '상의할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의 15.69%나 차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우리 나라의 진로지도 실태를 엿볼 수 있다. 즉, 과도한 입시경쟁과 실력부족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부모들이 자녀의 올바른 적성이

나 흥미보다는 성적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진로문제에 대해 상의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에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진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탐색하고 인식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깨우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진로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항상 고민을 함께 나눌 상담자로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진로에 대한 상담자로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동들이 부모와 의논하려는 경향을 보였지만,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부모보다는 친구에게 더 많은 의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광병선·한승희(1982), 이성진(1984), 신재호(1984)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며, 그 이유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와 상의할 시간조차 나지 않는 현실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진로에 대해 상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실정을 엿볼 수 있다. 진로선택에 대한 충분한 자료의 제공여부에 대해서는 학생의 성별이나 학교수준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학교가 학생들에게 학교수준에 맞는 진로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학생들도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학생의 진로의식 수준은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높아지는

데 비해 학교 및 가정에서 충분한 진로정보나 상담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어, 학생의 수준에 맞는 진로교육 및 지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부모의 진로의식

학부모의 진로의식을 살펴본 결과, 먼저 자녀를 교육시키는 이유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는 직업이 자녀의 능력이나 적성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업이 단순히 생계유지의 수단이 아닌 자아실현의 맥락에서 목적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황일수(1994), 신장섭(1997)의 연구를 지지해 주었다. 또 자녀의 학교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업을 경제적 수단이나 입신출세와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현 학부모의 직업관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부모는 모두 직업에는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이 있다는 귀천의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경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높은 것으로 보아 뚜렷한 직업관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정에서의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직업을 출세 또는 돈벌이의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모들의 잘못된 진로관이라고 밝힌 광병선·한승희(1982), 장석민(1985)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자녀의 장래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본 결과,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장래 직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수준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해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학부모의 대부분이 자녀가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먼저 꾸준한 적성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Super(1970)와 이현립(1997)의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에 비해 아버지가 학벌이나 배경과 권력이 좋은 직업선택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부모교육시 제외되고 있는 아버지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의 학부모는 좋은 직업선택의 조건으로 꾸준한 적성개발에 못지않게 학벌(24.89%)이 중요하다고 반응해,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학교교육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도구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자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장석민·김애송(1985)의 연구를 지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직업을 바꾸겠는가에 대한 결과는 학부모 모두 이직이유로 적성과 경제적 조건을 고려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의 부모는 다른 부모들에 비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이직을 한다고 반응한 것과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는에 높게 반응해 중학교 학부모들의 진로의식 수준이 다소 높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요약하면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포부나 기대심은 많이 가진 반면에 그 자녀가 어떤 것에 직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 추상적인 진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진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의식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의식을 분석해 본 결과, 희망하는 장래직업이 무엇이나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의식 수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학생들의 숙련직 선호도가 매우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고, 반면 부모들은 자녀의 장래직업으로 전문직이나 관리직보다 반전문직이나 소기업과 같은 안정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Krippner (1964)와 신옥순(1995)의 연구를 지지해 주며, 이현림(1997)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즉, 초등학생들은 반전문직이나 소기업, 숙련직을 희망하는 학생도 다수 있었는데, 이들은 사회가 선호하는 직업보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학생들이 모두 희망직업을 자신의 현실과 시대상황을 고려하여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학부모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만 자녀가 여전히 전문직·관리직(I)과 반전문직·소기업에 종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장래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직업선택은 개인의 적성이나 흥미, 신체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 중 자신이 못이룬 꿈이기 때문(Ginott, 1972)에 자녀가 특정직업을 가졌으면 바라는 경우가 다소 있었으며, 이는 장석민·김애송(1985)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그리고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거나 혹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특정직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나는 결과에서도 학생 및 학부모 모두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요인은 학생의 장래희망 직업의 선택이유와 같이 학생의 개인특성에 적절해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 간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부모들은 학생들에 비하여 직업이 자기 특성에도 물론 맞아야 하지만 안정된 직업(Holland, 1959; Herr, 1995)이어야 한다는 데 좀더 높게 반응한 것으로 보아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보여 준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직업선택의 이유로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초등학생 및 그들의 학부모는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자기특성에도 맞아야 하지만 안정된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아버지의 경우 직업의 사회적인 인정에 대한 반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다소 직업선택이 먼 장래일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자기특성에 맞는 직업은 물론 안정적이어야 하고, 발전성있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신념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는 직업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안정성에 둔다는 사실과 아버지 역시 안정성과 경제성을 직업선택의 주요요인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학생이든 학부모든 상관없이, 사람이 직업을 갖는 이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학교수준별로 일을 하는 중요 이유를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모두 '보람과 만족을 찾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을 하는 이유를 보람과 만족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주장한 Super(1953)와 Lee(1988)의 이론과 일치하고 있다. 또 장래 직업에 대해 부모와 자녀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는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꼭 직업을 갖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상담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자신의 직업에 부모의 의견보다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직업결정에 여전히 관여하고 싶어하는 측면을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의 직업을 결정하겠다고 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또 초등학생의 부모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생의 부모들은 자녀의 장래직업에 대해 매우 민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은 장래 직업에 자신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가 좀더 자신의 결정대로 자녀의 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부모와 같이 중학생의 학부모들도 자녀의 장래직업은 자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장래직업에 대한 토론정도는 보통수준의 반응을 보여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의사소통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장래에 가지고 싶어하는 직업에 대하여 부모들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에 반해 부모들은 자녀가 희망하는 장래직업에 대해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부모들의 좀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이현립(1997)의 연구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에 반해 그들의 부모와의 토론 정도가 지극히 낮다는 사실은 이들의 바람직한 상담자로서 부모가 적절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가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타 학교수준의 학생들과 학부모에 비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는 장래 직업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학생 모두 다양한 노력을 보이는 결과라 생각된다. 또 학교수준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에서 모든 학교수준에서 학생과 부모가 서로 장래 직업에 대해 토론하는 정도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세계 및 부모의 직업에 대한 가족의 토론 정도에서 학생들은 부모나 가족들과 직업세계에 대해 별로 토론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부모들은 많은 토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부모들이 자녀가 새로운 직업세계나 부모의 직업에 대한 관심에 대해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학교수준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초·중

학생들은 그들의 부모에 비해 직업세계나 부모의 직업에 대해 가족들이 별로 토론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했고, 부모들은 모두 자녀와는 달리 아주 많은 토론을 가족들과 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또한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타 학교수준의 학생과 학부모에 비해 좀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고등학생들이 입시에 얽매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음을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가장 진로나 직업세계에 관심이 많을 시기에 부모가 좋은 상담자가 되어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어 진로상담에 대한 부모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현대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제는 변화에 발맞추어 발전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맞물려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IMF시대에 고용 불안정과 정리해고,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의 문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여러 직업유형에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는 과업만 생각해서는 살아남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복잡하게 변천하는 사회구조와 직업구조, 기술구조, 시대상황에 적응해 나가도록 돕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학교에서 시기적절한 진로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는냐는 문제이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과를 중심으로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어떻게 진로선택이라는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효과적인 학교 진로상담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들은 진로상담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아 지적 발달에 편중되지 않고 자녀의 진로의식 발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문제를 상급학교 진학문제로 동일시하여 공부만 열심히 하면 진로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진로의식도 신체 발달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단계적으로 발달하며, 각 발달단계에는 독특한 특징과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음을 부모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학생들도 학교나 가정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매체에 대하여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직업관을 심어주고, 정신적인 노동이 육체적 노동보다 좋은 직업이라는 사고방식을 지양해야 하며 이는 현 우리나라 현실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에 대해 긍지를 갖고 그 일 자체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학부모는 자녀에게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가정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학생들은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든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학교에서도 각각의 직업의 특성 및 중요성에 대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부모와 학교는 학생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올바르게 새로운 직업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자녀에게 자신의 장래 진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상담자는 부모와 선생님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며, 교사는 학생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현재 부모나 교사의 모습이 바로 미래의 자녀와 학생의 모습이 된다. 그러나 부모는 진로지도를 학교의 소임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도 역시 상급학교 진학만이 학교의 과업인양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학부모가 진정 자녀의 진로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직업 및 진로에 대한 토론을 허심탄회하게 주고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는 직업유형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올바르게 제공하며, 자녀보다 풍부한 자료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정보는 자녀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유효적절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하며, 부모가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언제든지 학교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 나라 학부모의 진로의식 역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재정비되어야 한다. 여전히 자녀의 진로를 자신의 생각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진로의식을 가진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뿐이지 강요할 수는 없으며, 자녀 역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다양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부모와 교사라는 사실에 저항하지 않아야 한다. 학교는 다양한 검사와 관찰, 컴

퓨터 지원체계 등을 토대로 그 학생의 적성이나 소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부모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학업성적에 의한 진로지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는 자녀의 적성과 성격특성, 소질 등에 알맞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점점 더 전문화, 분업화되며, 다양한 어려움과 가치관의 혼란 등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 분야에 알맞은 적성과 전문적 기능을 습득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이때 자녀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학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곽병선·한승희(1982). 국민학교 아동, 교사, 학부모의 진로의식에 관한 기초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기욱(1997).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옥순(1995). 초등학교 학생의 진로에 대한 학생 및 부모의 의식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장섭(1987). 고등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재호(1984). 중등학생의 직업지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유기섭·정원식·황용연·정수현·홍기형·이완근

(1978). 중·고교 진로지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진로지도 연구교재 편찬위원회.

이성진(1984). 한국 중고등학교의 진로의식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정근(1992). 進路指導와 進路相談.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이재창·박부권·유혜경·최상근·고진영(1981). 청소년 문제 종합집단 연구—자아개념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현립(1973). 직업발달론의 개설적 고찰.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4(1), 33-43.

이현립(1997). 대구·경북 인재육성을 위한 학부모의 대응방향. 한국지역개발연구재단. 팔공포럼, 14.

이해란(1988). 중학생 및 교사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석민(1982). 진로교육자료.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장석민·김애송(1985). 진로교육에 관한 문헌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원식·김경동·김신일·배규한·최일섭(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1986).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황일수(1994). 중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Bigner, J. L.(1979).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Macmillan.

Bottoms, G., & Cleere, W. R.(1969). A one-week institute to develop objectives and models for a continuous exploratory program related to the world of work from junior high through senior high school: Final report. Paper presented at the

West Georgia National Conference, Carrollton.

Brown, D., & Brooks, L.(1991). Career counseling techniques. Boston: Allyn & Bacon.

Crites, J. O.(1969).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Crites, J. O.(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for the CMI. Monterey, CA: CTB/McGrawHill.

Erikson, E.(1963). Children and society. New York: Norton Press.

Ginott, H. G.(1972). Teacher and child. New York: Macmillan.

Ginzberg, E., Ginsburg, S. W., Axelrad, S., & Herma, J.(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Gysbers, N. C. & Moore, E. J.(1975). Beyond career development life career development.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3, 647-652.

Havighurst, R. J.(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Mckay.

Herr, E. L., & Cramer, S. H.(1972). Vocational guidance and career development in the schools: Toward a systematic approach. Boston: Houghton Mifflin.

Herr, E. L., & Cramer, S. H.(1992).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through the life span: Systematic approaches (4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Herr, E. L.(1995). Counseling employment bound youth. Greensboro, North Carolina: ERIC Counseling and Student Services Clearinghouse.
- Holland, M.(1959). A theory of vocation to career education. Policy paper of the U. S. Office of Education.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Washington, D. C.: The Office.
- Holland, M.(1981). Relationships between vocational development and selfconcept in sixth grad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228-236.
- Hoose, W. H., & Leonard, G. E.(1971). Vocational guidance in the elementary school. In Herman J. Peters & James C. Hansen(Eds.). *Vocational guidance and career development* (pp. 312-316). New York: Macmillan.
- Krippner, S.(1964).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Harper & Row. vocational preferences and their parent's occupational level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2, 75-94.
- Kinner, C. T., Brigman, S. L., & Novel, F.(1990). Career indecision and family enmesh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208-215.
- Lee, H. R.(1988). *Comprehensive career development program models for assessing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O'Hara, R. P.(1968).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use of occupational information in guidance. *Personel and Guidance Journal*, 46, 636-640.
- Parsons, F.(1909). *Choosing a vo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 M.(1957). *Occupation and values*. Glence: The Free Press.
- Super, D. E.(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s*, 8, 4, 185-190.
- Super, D. E.(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 College Record*, 57, 151-163.
- Super, D. E.(1970). Work values and self-mea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 4, 4-11.
- Super, D. E.(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pp. 197-261). San Francisco: Jossey Bass.
- Tiedeman, D. V.(1961). Decision and vocational development: A paradigm and its implication.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40, 15-20.
- Tolbert, E. L.(1974). *Counseling for career development*. Boston: Houghton Mifflin.
- Upton, A. L.(1982).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guidance and counseling plan for the State of California.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0, 4, 293-299.

Vandenberg, D.(1968). Life-phases and values.
Educational Forum, 32, 393- 402.
Zunker, Vernon G.(1994).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A Study on the Betterment of School Career Counseling

Hyun - Rim Lee

Yeungnam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trends of career counseling for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pres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awareness levels, student gender, and school level.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provide effective methods and basic materials of career education to students, in order to improve the career awareness of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addi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valuable information concerning career education and counseling in schools.

This research was executed through survey research. To be the subjects of the study, 631 parents and 650 of their children were chosen at random in Taegu and Kyongpook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as computer processed using the SAS program.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derived from quantitative data, and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from non-quantitative dat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elf-understanding of career awareness, boys and girls comparatively responded positively. Most major problems of student concern were found associated with grade level and career knowledge. The student's career counselors were mostly their parents.

(2) Parents recognized work and occupation as important, but evaluated professional jobs more highly than non-professional jobs. Parents showed very negative responses to the offer of job information from the school. Parent's attitude toward occupations and stereotypical roles by sex was conservative. Student's and

parent's interests in career information was very grea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more career education at schools. School counseling has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career awareness by giving better information on job skills and occupations. In order to develop better career awareness, an effort to seek the cooperation of paren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present study indicates that parents affect their children to a great extent in the development of their career awareness.